믿음으로 하늘에 매달린 활화산 된다

(히11:32~40)

32.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33.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34.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35.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36.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믿음으로 하늘에 매달린 활화산 된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하늘에 매달린 활화산이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늘에 매달린 활화산입니다.
땅에서 솟아오른 화산이 어떻게 생기는지는 다 아실 겁니다.
지구의 내부에 불덩어리가 있습니다, 그걸 마그마라고 하지요.
그 마그마가 물이 흐르듯이 흐름을 갖는데, 이게 뜨거워서 압력이 팽창하게 되면서 흘러가다가 지구 표면 중에서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압력이 뚫고 마그마가 분출되는 것이 화산이죠.
불이 나온다고 해서 화산 아니겠습니까?
2014년도만 해도 세계적으로 화산에서 분출하는 위험한 사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에콰도르에 있는 툰구라 화산이라든지, 인도네시아의 상제앙 아피 화산, 일본의 사쿠라지마,

미국 알라스카의 파블로프 화산 등, 이런 화산들이 계속해서 분출하고 있는데, 여러분, 화산이 분출하면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폼페이가 베수비오화산 분출 때문에 일시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화산분출이 안 좋은데,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은 땅에서 솟아오른 화산이 아니라 하늘에 매달린 화산으로 산다는 것을 뜻한다는 겁니다.

하늘에 매달린 화산으로 살 때에 마그마가 분출돼요.
근데 그때 분출되는 마그마의 내용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내가 하늘에 매달린 화산이 되고, 그 화산이 되었을 때 뜨겁게 흐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가 가는 곳마다 만나지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들이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흐름을 갖고 있다가, 내가 화산이 되어서 이 땅에 분출되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어떨 때에 그것이 분출되느냐, 지표가 약할 때 마그마가 분출되는 것처럼 심표가 약할 때 하나님의 마그마가 이 땅으로 분출이 됩니다.

그러면 그 반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이 없이 살 때도 역시 화산으로 살아요.
화산도 분출되는 규모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잖아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한 인간 한 인간이 활화산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분출되는 마그마의 내용이 뭡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계획인데, 그 성분을 따져보면 결국은 죄에요, 죄.
예를 들어서, 히틀러가 어렸을 때 유대인에 대한 적개심을 키우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정권을 잡게 되자 600만 유대인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유럽 전체를 완전히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게 됩니다.
히틀러라고 하는 한 인간의 활화산에서 분출한 마그마가 온 유럽을 덮어버리고, 600만 명의 생명을 앗아버리고 만 겁니다.
나 개인이 히틀러만큼 큰 활화산이 아니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결국 내 속에는 죄가 도사리고 있고 죄가 분출되게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잘해보고자, 나는 내 자식과 가족을 잘 사랑하고 부양하고자 내 계획을 얘기하고 내 뜻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지만, 그게 다 죄악이 분출되는 것이고, 사는 동안에도 돌아보면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는 마치 폼페이가 화산분출 마그마에 덮여서 없어지는 것처럼,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또 믿음이 없이 살면서 꿈과 비전을 가지라는 말에 속아서 꿈과 비전을 갖고 이 세상에서 대단한 걸 이뤘다 해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될 것

입니다.
아무것도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온 죄악으로 내 생애를 덮어버림으로써 그 죄악의 값을 영원히 치러야 되는 심판에 처하게 될 거라는 얘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늘에 매달린 활화산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하늘에서 뜨겁게 운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신 사랑이 분출되면서 은혜로 덮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덮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여야 되는 것이에요, 내 주변이 다.
이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심표가 약한 부분을 뚫고 하늘의 마그마가 분출이 됩니다.
근데 어떡하면 우리 마음의 표면인 심표가 약해져서 하늘의 마그마가 분출이 됩니까?
이걸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나눌 때, 믿음이라는 얘기를 사도신경을 말하는 '크레도'라는 라틴어를 통해서 설명했었습니다.
사도신경을 일컫는 '크레도'라고 하는 라틴어 뜻이 '나는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느냐를 설명해드렸었습니다.
라틴어의 심장을 말하는 단어가 '꼬르'라는 단어입니다, Cor.
거기에다가 '준다'고 하는 동사인 '다레'의 1인칭이 '도'입니다.
'도' 하면 '내가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꼬르'와 '도'가 합쳐지면 법칙에 따라서 '오'가 없어지면서 '크레도'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내 심장을 꺼내주는 게 '나는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할 때의 뜻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아버지께 내 마음을 꺼내서 드립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내가 온통 무엇엔가 빠져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왜 신경을 씁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내가 기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내 인생이 편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경을 쓰고 마음을 쏟아 붓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을 어떤 포인트에 맞춰 우리에게 지금 드러내주고 있느냐?

마음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마음을 드려야 되는 대상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믿음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늘을 타시고 우리 앞에 와계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늘을 타시고 주관하시면서 우리 앞에 와계시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얘기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바라는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 우리도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얘기를 6절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라는 얘기로 또 바꿔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것이 1절의 말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까지 포함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것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늘을 타고 우리 앞에 와계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마음을 드려서 하나님만을 상대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마음을 주지 않고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있는 그 자체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상대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왜 어렵습니까?
보이는 많은 것들이 내 마음을 빼앗아가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 계심을 믿는다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예로 든 것이 골리앗, 골리앗이 보이잖아요, 보이는 골리앗에 마음을 뺏겨버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대하지 못한 거예요, 사울 왕이.

여기서 우리가 심표가 얇거나 약하다는 것이 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늘의 마그마가 이 땅으로 분출되기 위해서는 심표가 약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심표가 약

하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주면서 삽니다.
근데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주는 마음의 두께가 점점 얇아지는 겁니다.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주는 마음의 두께가 점점 얇아지는 것이, 심표가 지표가 얇아지는 것처럼 얇아지는 것이고, 그렇게 얇아짐이 극에 달했을 때 드디어 하늘의 마그마가 분출돼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기드온 얘기가 나오잖아요?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쳐부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근데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정말 별 볼일 없는 집안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용기도 없어요,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몰려온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내가 미디안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확증을 보여주세요,' 세 번씩이나 요구를 합니다.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미디안, 이건 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미디안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 실현된다고 하는 확증을 달라고 반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함으로써, 보이는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미디안이 나를 이길 수 있다는 신뢰가 사라져버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점점 단계적으로 커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미디안에 대한 생각이 가장 얇아졌을 때 그곳을 뚫고 기드온과 삼백용사가 말도 안 되는 전술을 통해서, 밤중에 불 항아리를 깨는 그 소란을 떨면서 전쟁을 승리하게 되는데, 그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게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했다가 강해지기도 하고 등등…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 무슨 뜻을 의미하는 겁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것은 바락이나 기드온, 삼손, 입다 같은 사람들은 다윗이나 사무엘,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과 같은 그렇게 믿음의 선진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취약한 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드는 이유가 뭡니까?

기드온 같은 경우 미디안을 때려 부순 다음에 추앙을 받게 되면서 사치한 생활에 빠지게 되고,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봇을 갖다 두고 백성들로 하여금 에봇에 우상숭배를 하게 합니다.
이처럼 항상 정치가 종교와 연결돼 있어요.
일본이 지금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범들의 유골을 모아놓은 곳인데…
이렇게 기드온이 전쟁에 이긴 다음에 방탕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을 예로 들었느냐?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둘 때와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둘 때의 차이를 알리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서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는 마음의 심표, 마음의 표면이 얇아질 때 하나님의 뜻이 분출돼서 미디안을 다 무찌르게 되었지만, 우리가 다시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게 될 때는 마음의 심표가 두꺼워지면서 하나님과 상대하지 않고 에봇, 우상을 섬기도록 백성을 이끄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중에서도 땅에서 솟아오른 활화산이 될 것이냐, 하늘에 매달린 활화산이 될 것이냐, 끊임없이 우리의 선택이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은 마지막으로 흘러가면서 땅에서 솟아오른 활화산이 되다보니까 결국 자기의 죄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죠.
들릴라, 예쁜 여자에게 반해가지고 그만 비밀을 말해버립니다.
그래서 눈알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소나 나귀가 돌리던 방아를 돌리는 처지가 되잖아요?
즉, 눈을 잘못 돌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보이는 들릴라에게 빠져가지고 심표가 두꺼워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막혀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막히니까 붙잡혀갔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진짜 볼 것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인데, 삼손이 눈을 뽑혔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보아야 될 하나님을 못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고 마음을 거기다 줌으로써, 결국 눈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로잡혀서 끌려갔으니까.

결국 믿음이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늘에 매달린 활화산이다, 얇은 심표를 뚫고 나온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 위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다가 무의 상태에다가 창조하십니다.
근데 창조하시기 직전에 수면 위에서 운행하신다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암탉이 알을 품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무(無) 위에서 암탉이 알을 품고 있듯이 품고 계시다가 알이 깬 것이 창조라는 겁니다, 그 알 속에는 하늘과 땅도 들어있을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생물의 창조 계획도 들어있을 것이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암탉이 알을 품듯이 하나님의 신이 하늘에서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그마처럼 뜨겁게 사랑과 은혜로 긍휼과 자비로 가득 찬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운행하고 계시는데, 심표가 너무 두꺼운 거예요, 뚫고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이것을 얻고 저것을 얻고…' 이렇게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구약성경과 매치가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찾아서 얘기할 수가 없죠.
근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본문에 대한 말씀을 해나가시는 중에 이상한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32절에서 35절 전반부까지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얻는 쪽으로 얘기합니다, 얻고 승리하고 이기고 하는 쪽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도 되고…
불의 세력을 이긴 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대표적인 경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반부로 넘어가면서 아 이게 웬일입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이기고 얻고 승리하고 하다가 35절 후반부터는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전해지는 얘기로는 이사야가 톱에 켜서 순교했다고 그러지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하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이상한 반전을 얘기하고 나서, 믿음이 있는데 승리하고 이기고 획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당하고 칼로 죽고 톱으로 켜서 죽고 동굴을 도망 다니면서 유리하고… 하다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동의가 됩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낙오자가 된 거잖아요, 근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을 이겼다는 얘기에요, 유리하고 방황하고 톱에 켬을 당해서 죽었는데, 매 맞아 죽고 돌로 맞아 죽었는데 세상을 이겼다는 겁니까? 세상에 진 거지?

이 사람들이 게으르고 빈둥거리고 놀다가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 낙오자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둑질하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다가 잡혀서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잖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보이지 않는 하늘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아버지와 영원히 같이 살고 싶은 소망 때문에 이렇게 당한 겁니다.
그렇게 소망을 갖고 살다가 당한 건데, 이들이 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고,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주지 않았으므로 심표가 약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뜻이 분출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분출되지 않고 어디 갔습니까?
분출이 된 거예요, 어디로 분출됐는지 아십니까?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데도 조금도 상실감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왜 상실감이 없습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분출시켜서 쏟아 부어서 채워 넣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가득 차고 나니까, 기드온이나 삼손이나 입다 바락, 이런 사람들은 적을 무찔러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늘에 매달린 활화산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분출했습니다마는, 톱에 켬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는데도 하나님을 붙들고 죽은 이 사람들은, 몸이 죽는데도 조금의 상실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자신이 마음에 분출돼서 하나님으로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얘깁니다.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분출시키시고 당신의 계획을 분출시키시고 당신의 은혜를 분출시키실 때 순간순간 때를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거지만, 톱을 켬을 당해 죽는데도 하나도 상실감을 느끼지 않고, 유리방황하면서 인생을 살고 지하 동굴에서 살면서 자식을 낳고 손자를 낳고 증손을 낳는데도, 그런데도 상실감이 없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나 뜻이나 계획이 아니라 당신을 쏟아 부어 분출시키심으로써 그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고 채웠기 때문에, 육체가 톱에 켬을 당해 죽는 그 상황에서도 이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내 육체가 없어짐에도 상실감을 느끼지 않는다, 무슨 뜻을 말하는 겁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이 말을 직역하면, '이런 사람에게는 이 세상은 살아야 될 가치가 없는 세상이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 세상을 그렇게 애 터지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꽉 찬 마음으로 볼

때.
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톱으로 켬을 당하여 죽게 되든지 그냥 늙어서 죽든 간에, 이 상태는 우리한테도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절에 얘기합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사건이 일어남으로써, 누구나 다 톱에 켬을 당해 죽는 한이 있어도 상실감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분출돼서 우리 마음을 꽉~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고, 이들이 하늘나라로 못 올라간 것은 우리가 참여되어야 되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서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들이 아직까지도 그 바라던 약속했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옆에 있는 하늘나라의 처소에 올라가는 그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늘에 매달린 활화산들이 되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보이는 것들을 마음을 주고 상대하는 우리 마음의 지표가 두꺼워지지 않도록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 보이는 모든 것들에 죽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자신이 내 마음속에 분출되어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들이 나를 통해 이 땅에 덮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